



# (기획시리즈) 회고록으로 보는 이민

## “북한 어머니 찾으러 캐나다로 왔습니다” - 송영석 천로역정

### (1) 6.25 전쟁 폭격 속에서 입안 흑 치료 위해 인민군병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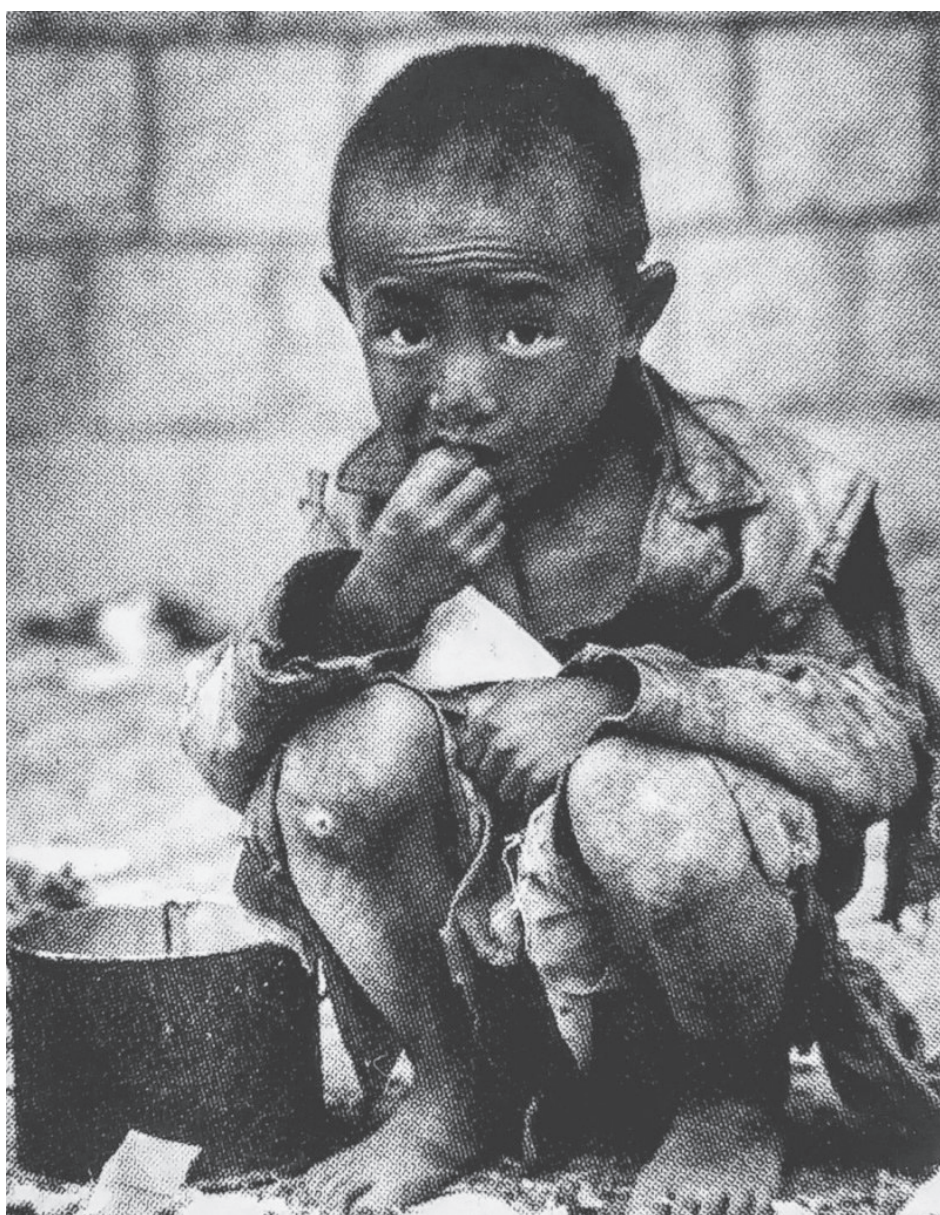
국민학교 5학년 되던 해에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났으며 38선 인근에 있던 연안도 전화에 휩싸였고 부친과 누나 둘 그리고 형이 먼저 남쪽으로 각 각 피난가고 어머니와 나, 남동생과 그리고 두 여동생이 연안에 남게되었다.

당시 젊은 남자는 인민군에 징집될 수 있다고 해 젊은 남자들부터 먼저 이남으로 내려갔다. 15살인 형이 중공군에게 붙잡혔다가 겨우 풀려나자 부모님은 재빨리 이남으로 피신시켰다.

전쟁이 일어 난 지 일년이 지났을 때의 일이다. 어느날 나는 하루 종일 밖에 나가 동무들과 함께 만나 신나게 놀다 보니 배가 너무 고팠다. 집에 돌아와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부엌에 들어가 솥뚜껑을 열어 보았으나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부엌 바닥 자루에있던 낱감자 몇개를 먹고 또다시 밖에 나가 계속 놀았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니 이상하게 입속 혀 밑이 땡기고 불편해 지면서 침을 삼키기도 힘들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아픈 곳을 보이니 혀 밑에 큰혹이 생겨난 것을 알았다. 겁에 질려 울기만 하는 나에게 어머니는 내일 아침 날이 밝는대로 인민군 병원이라도 찾아가 보자고 하시며 나를 안심시켜 주셨다. 나는 제대로 잠도 못자고 밤새도록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아침에 어머니와 함께 인민군 병원을 찾아가기 위해, 몇 시간을 걷는 중에 갑자기 뒤 쪽에서 들리는 비행기 소리에 놀라 하늘을 쳐다보니 남쪽에서 폭격하러 날아 오는 썩새기라고 부르는 제트 폭격기가 눈에 들어왔다.



생감자 독으로 입안에 흑이 생겨 병어리 신체가 된 나와 어머니 우리 머리 위를 알게 날아가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총 사격과 포탄을 퍼붓는다. 여러 대가 함참 폭격을 하는 동안 어머니와 함께 다리 밑에 숨어 있다가 폭격이

끝나고 비행기들이 돌아간 다음에야 계속해서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다.

한참 만에 찾아가던 병원은 산속 땅굴 속에 있었다. 들어가 보니 중상을 입은 인민군들의 신음 소리와 비명 소리에

의사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병원에서 또 많은 시간을 기다리다가 어렵게 군의관을 만났다. 어머니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군의관은 내게 입을 벌려 보라고 한다. 그리고는 흑에다가 무슨 약을 발라 주고는 이제 집에 가면

락을 칼로 한 쪽을 약간 쪼개고는 칼날 같이 예리한 사기를 갈라진 틈에 끼우고 실로 양쪽을 돌려 매니 도끼 모양이 되었다. 그것을 내 아랫입술과 턱 중간에 사기 끝을 갖다 대고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탁치니 그 곳에서 피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집에가서 며칠 지나면 관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집에 돌아와 시간이 좀 지나니 보니 신기하게도 흑이 좀 작아지고, 아직 불편 하지만 말도 좀 할 수있었으며 음식도 조금씩 먹으니 어머니는 너무나 좋아 하셨다. 그리고 “영석이 이제는 네 입병도 나아지는 것 같다. 감자 눈에는 독이 있으니 앞으로 절대 날로 먹으면 안된다”고 하셨다.

삼일정도 지나니 나아지는 줄로만 알았던 흑이 다시 부어오르면서 고통이 찾아와 힘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나를 불러 “영석아, 이제 여기서는 네 입병을 고칠 방법이 없겠구나”하시면서 “시간을 더 끌다가는 흑 네가 말도 못하는 병어리가 되면 큰일”이라며 걱정을 많이 하신다.

### 팬티에 금가락지 3개 넣어 준 어머니

며칠이 지난 어느날 집에 한 손님이 찾아 오셨다. 그날 아침에 어머니는 나의 팬티 고무줄에 금가락지 두개와 백금반지 한개를 묶어 주시면서 이 팬티를 입으라고 하신다. 그리고 나를 불러 찾아오신 손님에게 인사를 시켜주었다.

“오늘밤 너를 데리고 이남에 내려 가실 분이시다.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저씨 뒤만 꼭 따라가야 한다. 알았지? 그렇지 않으면 네가 길을 잃어 버려 큰일나게 된다”고 단단히 주의를 주시고는 내 잔등에 보따리를 지워 주시면서 눈물을 흘리신다.

(계속)

(..2 페이지에 이어)도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구에 존재했던 생물의 99.99%는 멸종했다는 사실이다. 우리 그 생물의 흔적인 석유, 석탄을 소비하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연구팀은 어떤 방식을 통해 여섯 번째 대멸종의 결과를 얻어냈을까.

연구팀은 현재 동물들의 멸종위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의 멸종위기 종 적색목록과 국제조류보호단체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의 자료들 이용, 2만9400종의 개체 수와 서식지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개체 수가 1000마리 미만에 놓인 멸종 직전 상황의 육지 척추동물이 515종이나 됐고, 이 중 조류가 335종으로 가장 많았다. 또 포유류 74종, 양서류 65종, 파충류 41종 순으로 나타났다.

515종의 절반 정도는 개체 수가 250마리 미만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15종 동물의 개체 중 1900년 이후 사라진 것이 약 23만7000마리이고, 이 기간에 포유동물과 조류 77종은 전체 개체 수의 94%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개체수가 5000마리 미만인 종도 388종에 달했다. 이 388종의 84%는 서식지가 1000마리 미만인 515종의 서식지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종이 멸종위기에 처하면 같은 생태계에 불안정을 초래해 다른 종들의 멸종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악순환이 결국 생태계 기능을 파괴해 인류를 위협에 빠뜨릴 것이라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생물 종은 서로서로 그 물망처럼 얽혀 있다. 그래서 한 종이 사라지면 다른 종이 바로 위협에 처한다. 거의 모든 동식물은 천적을 가지고 있다. 천적 관계는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먹이사슬은 생태계 지위를 결정한다. 생태계를 이루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중 어느 한 개체 수가 너무 폭등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만큼 급격하게 감소하면 생태계가 교란되고 파괴되면서 수많은 생물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즉 멸종이 멸종을 낳는 셈이다.

그렇기에 지구상에 남은 개체 수가 5000마리 미만인 종은 모두 IUCN 적색목록

의 ‘심각한 멸종위기 종’에 포함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주장한다. 앞으로 20년간 사람들이 멸종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른 수백만 종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세발로스 박사는 말한다.

특히 연구팀은 이번 여섯 번째 멸종의 주범이 인간의 활동임을 강조하고 있다.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의 서식지는 대부분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 열대·아열대 지역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연구팀의 연구 논문 ‘생물학적 전멸과 여섯 번째 대멸종의 지표로서 벼랑 끝에 있는 척추동물’은 국제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됐다.

### 지구 역사상 발생한 다섯 차례 대멸종 사건

지구는 이미 다섯 번의 대멸종을 경험한 바 있다. 오르도비스기, 데본기,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백악기의 대멸종이 그것이다.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멸종은 2억5200만 년 전 페름기 대멸종인데, 연구팀은 현재 동식물이 사라지는 속도가 이 페름기 때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첫 번째 대멸종은 약 4억5000만년 전 오르도비스기가 끝날 무렵에 일어났다. 대규모 빙하기가 시작되면서 빙하가 대륙을 뒤덮어 열대가 사라지고 난대성 동물들이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살았던 해양생물은 속(屬) 수준에서 57%가 멸종했고, 고생대의 대표적 산호들이 속 수준에서 70%가 멸종했다.

두 번째 멸종은 약 3억 6500만년 전인 고생대 데본기 후반이다. 약 400만년에 걸쳐 멸종이 진행되었다. 감춥을 두른 특이한 물고기인 갑주어가 거의 지취를 감추었고 총 75%의 생물 종이 멸종했다. 해저의 무산소화가 원인이라고 본다.

세 번째 멸종 사건은 약 2억5000만년 전인 페름기 후반에 일어났다. 육상생물의 70%, 해양생물의 95%가 멸종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 종 수준에서 봤을 때는 무려 96%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생물이 멸종했다. 관계아 대륙 형성 단계에서 약화한 지구 생태계가 페름기 말의 격렬한 화산활동에 의해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고 전문가들



은 말한다. 엄청난 양의 화산가스로 인한 온실효과와 대규모의 산성비, 폭발 초기의 일시적인 빙하기 등이 사상 최대의 멸종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이 시기 생물의 멸종은 약 800만년에 걸쳐 일어났다.

네 번째 멸종은 트라이아스기 후반(2억년 전) 약 1700만년의 기간에 걸쳐 일어났던 여러 번의 작은 멸종 사건들을 통칭한다. 전체적으로 약 48%의 속이 멸종했는데, 이는 다섯 차례 대멸종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관계아가 분리되기 시작할 때 북대서양이 열리면서 분출된 거대한 화산 활동이 멸종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다섯 번째 대멸종은 6500만년 전 백악기 때이다. 멸종 원인이 비교적 소상히 밝혀졌는데,

10km 이상의 운석이 멕시코 만에 충돌하면서 공룡을 전멸시켰다. 공룡 시대가 끝나고 포유류의 시대가 열렸지만, 총 다섯 차례의 멸종을 거치면서 지구상에 있던 생물 종의 75% 이상이 사라졌다.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시기는 평균적으로 1000만년이 걸린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생물 종을 멸종시키기는 쉽지만 보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생물 종에는 호모사피엔스, 즉 인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김형자 과학칼럼니스트

사진설명: 대표적 멸종 위기종인 아프리카 흰코뿔소.

공룡의 멸종을 가져온 운석